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사파티스타

김윤경

지난 12월 21일 수천 명의 사파티스타가 치아파스의 오코싱고와 산 크리스토팔 데 라스 카사스 등 몇 개 도시에서 침묵 행진을 벌였다. 이날 행진은 2011년 5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의 ‘마약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인 하비에르 시실리아(Javier Sicilia)가 이끄는 ‘평화, 정의, 존엄 운동’ 단체사람들과 함께 3만 명 이상이 산 크리스토팔 델 라스 카사스 시 광장에 모인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행진이었다. 이날 사파티스타는 아무런 지도자 없이 침묵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이러한 침묵시위를 통해서 사파티스타 운동의 유효함을 보여주고, 노동, 토지, 의료 서비스, 원주민 권리의 법적 인정 등을 요구하고자 했다. 이것은 사파티스타 운동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었다.

사파티스타 운동의 부활은 이 날 발표된 마르코스의 성명서에서도 드러났다. 짙막한 이 성명서에서 마르코스는 “들었는가?”라고 물었다. 세상이 몰락해가는 소리, 사파티스타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었다. 사파티스타는 수천 명의 침묵시위와 성명서를 통해서 사파티스타 운동이 죽지 않았음을, 나아가 새로이 도약하려고 한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했다.

사실 이것은 12월 30일 선언의 전초전이었다. 12월 30일 사파티스타는 멕시코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것은 ‘포기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항과 투쟁의 메시지’였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2006년 이후 6년 동안 눈에 띄는 움직임 없이 지낸 사파티스타가 이제 다시 저항의 고삐를 죄겠다는 선전포고였다.



2012년 12월 21일 치아파스에서 침묵 시위를 하는 사파티스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파티스타가 사라지지 않고 엄연히 살아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파티스타는 지금까지 자치를 통해서 이뤄온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스스로를 강화했고 생활 조건도 상당히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 정부 원주민 공동체의 생활수준보다 사파티스타 원주민 공동체의 수준이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교육면에서도 사파티스타 공동체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과학과 기술뿐 아니라, 원주민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을 강조했다. 더구나 사파티스타 원주민 여성은 상품으로 팔려나가지 않으며, 원주민 문화도 고립되지 않고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성명서에서 사파티스타는 대결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스스로 통치하는 것, 즉 자치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을 보였다.

실제로 사파티스타는 2003년부터 사파티스타 자치지역 내에 5개의

카라콜을 형성하여 자치를 실행했다. 카라콜마다 선정위원회(Junta de Buen Gobierno)를 설립하여 참여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자치를 시행했다. 게다가 교육과 의료, 경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주민의 역사인식과 건강,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원주민 언어와 역사,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원주민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의료 프로그램에서는 병원과 약국의 설립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원주민의 의료 문제를 최저 수준에서나마 개선하려고 했다. 원주민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수공예품, 커피, 콩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사파티스타 공동체의 생활 조건 개선 자금으로 활용했다.

과거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사파티스타는 성명서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6가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첫째, 원주민의 만남 공간인 CNI(Congreso Nacional de Indigena) 내에서 사파티스타의 입지를 강화한다. 둘째, 사파티스타를 지지하는 멕시코인 및 전 세계인과 접촉을 재개한다. 셋째, 현재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전개될 사회운동에 대해서 다리 역할을 한다. 넷째, 멕시코 정치계급에 대해서는 계속 거리를 두고 비판한다. 다섯째, 멕시코의 모든 정당을 포함하여 현 정부를 나쁜 정부로 규정하며, 지금까지 사파티스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비판한다. 여섯째, 멕시코인과 전 세계인과 더불어 일련의 주도권을 가지고 멕시코의 다른 원주민 종족과 함께 계속 걸어가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파티스타가 지금까지 지향해온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는 사파티스타가 멕시코인 및 전 세계인과 연대하여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며 원주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과거의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성명서에서는 연대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사파티스타 운동이 도약하려면 멕시코인과 전 세계인의 관심과 지지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파티스타 운동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에 이번 성명서에서 사파티스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 그것에 바탕을 둔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파티스타가 별이고 있는 ‘또 다른 운동 (Otra Compañía)’이 주목을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2월 21일의 행진과 12월 30일의 성명서가 사파티스타의 부활을 알리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대규모 침묵 행진과 선언을 통해서 사파티스타는 존재함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이 사파티스타 운동의 부활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의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윤경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